

기억하라

신명기 8:1-10

바로 엿그제 신년을 맞이한 것 같은데 벌써 송년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은 금년 마지막 주일로서 지나간 1년을 돌이켜 보면서, 지난 한 해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바 은혜를 다시 한 번 감사하고 되새기고, 또 잊지 말고 기억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천안에 가면 독립기념관이 있듯이 이스라엘 나라에도 독립기념관이 있는데, 그곳에는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는 글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A.D. 70년 로마에 의하여 나라가 망한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 세계로 유랑을 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제 2 차 대전 때에 독일로부터 참으로 말로 표현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아우슈비츠와 같은 형무소에서는 히틀러에 의해서 600 만 명이 가스실에서 질식되어 학살을 당하였고, 또는 주사나 총살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을 한 후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치 독일을 용서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을 되풀이하지 말자고 저들은 굳게 결심을 하고, 그 결심은 오늘날까지 그들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40년의 역사는 문자 그대로 시련의 역사였습니다. 40년은 한 세대가 훨씬 넘는 세월입니다. 이와 같이 지나간 세월을 소비한 이유를 3 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 절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 하였습니다. 이 단순한 진리 한 가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40년의 세월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는 사방으로 열려있는 공간입니다. 또한 이 넓은 광야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그런 반면에 광야는 많은 위험이 존재하고 아직 개발되지 않는 미지의 거친 땅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생활을 할 때에 저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위험을 동시에 체험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광야는 위험과 약속, 시련과 은혜, 절망과 소망, 흑암과 빛이 교차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위기와 긴장의 장소인 광야에서만 진정한 신앙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나간 40년 동안의 광야생활은 결코 무의미하거나 고생만 하며 살아온 것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항상 때마다/순간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보호하심이 함께 하신 것이며, 또한 축복의 약속을 받은 아주 소중한 은혜의 체험이기 때문에 그 40년의 세월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첫째로 모세는 광야생활에서 겪은 “고난을 기억하라” 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때가 자신의 인생에 유익이 되느냐 하면 모든 일이 잘 되고 편안 할 때가 아니라 환난과 고난과 역경에 있을 때 삶에 더욱 유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오늘날까지 축복을 받고 살면서 과거 자신들의 조상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던 것을 기억하고 지냅니다. 인도의 간디는 말하기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원리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고난이란 인간의 살아가는 여정에서 빼 수 없는 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물리학자요 철학자인 파스칼은 말하기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더욱 깊고 위대하게 만드는 도구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
한대섭 목사

고난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하여 인간은 연마되고 신앙은 빛을 내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자에게는 정금과 같이 빛나지만, 고난에 패하는 자는 그 고난이 멸망의 재난으로 바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광야생활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라” 고 하였습니다. 출애굽 사건이 주는 교훈은, 40 년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하나님의 강한 팔로 구원하여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는 그의 마음이 강박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주지 않고 그들에게 더욱 힘든 고역을 시켰습니다. 그와 같은 바로에게 하나님은 열 가지 재앙을 내렸고, 마지막 열 번째에 장자가 죽는 재앙이 애굽 전역을 휩쓸던 날 밤, 애굽 전역에는 곡성이 진동을 하였습니다. 바로의 왕으로부터 천한 종들에게까지 장자가 죽임을 당하였고, 심지어는 기르는 가축의 새끼들에게까지 첫 새끼가 모두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밤 예수님의 구원의 상징인 어린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재앙을 면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마침내 바로는 하나님께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기사와 이적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역사를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 년간 걸어온 길은 참으로 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단 한 명도 그 길을 가본 사람이 없습니다. 낮선 길을 가려면 길을 잘 아는 안내자가 있든지 아니면 지도라도 있어야 찾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길을 안내해 주는 안내자도 없고 지도도 없이 지나간 여정 길을 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바로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시는 증거이며 저들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증거였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날 밤, 베들레헴 마구간에는 동방에서 온 세 명의 박사들이 예물을 드리면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박사들은 여러 날 전에 이상한 별을 보고 동방으로부터 별의 인도를 받아 베들레헴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캄캄한 밤, 처음 가는 미지의 길을 오직 별만을 보면서 따라와서 메시아 예수를 만나는 영광을 얻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마치 광야의 길을 가는 어려운 생활과 같습니다. 우리가 광야와 같은 어려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가기만 하면 우리가 가는 영원한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불평과 원망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서 저들은 광야에서 모두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모든 축복을 허락하실 것을 기억하라”고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 6-10 절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어떤 곳입니까? 7-9 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 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캐는 것이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너의 후손들에게 주리라고

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
한대섭 목사

약속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는 이미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일곱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곱 족속들을 모두 멸하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실 가나안 땅은 우리 조국 한국 땅에 비하면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보다 더 좋은 땅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 땅을 매우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희생이 뒤따랐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하늘나라인 가나안을 소망하며 광야의 여정을 나아가고 있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겨들어야 합니다. 광야의 여정에서 탈락하지 않고 무사히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주어진 시험과 연단과 환난의 과정을 잘 통과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올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2007 년의 송년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들도 지난 1 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해 주시며 우리와 함께 역사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2007 년 한 해 동안 날마다/시간마다/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섭리 중에 우리가 살아온 것입니다. 환난이나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지켜 주셨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에 아프고 쓰라린 때가 있었습니까? 슬픈 일을 당했던 때가 있었습니까? 하는 일이 잘 안되고 실패를 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아야 할 것은, 그와 같은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사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영원한 가나안을 허락하실 것이며, 은혜와 평강과 영생과 생명의 면류관을 상급으로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